

올해도 농식품 수출 확대 의지 다짐

농식품부, 비대면 수출 확대 간담회... 아마존도 참석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소비시장 동향·전망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수출 농가·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7% 증가한 75.7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농식품 수출 성과를 격려하고, 올해에도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딸기·포도·김치·인삼 등 신선농산물 및 라면·장류·닭고기·쌀 가공식품 등 가공식품 주요 수출업체와 농진청·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아마존코리아)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소비 시장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수출 확대를 견인한 주요 품목의 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공유하며, 올해 수출 확대 의지를 다졌다.

대표적인 성과 사례를 살펴보면, 딸기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항횟수 감소 등에 대응해 대한항공과 업무협약

(MOU) 체결을 통해 싱가포르 수출 딸기 전용기를 운행했고, 포도는 보관상자 개선, 예방처리 등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저장기간을 연장(4~6개월)해 수출을 확대하는 등 물류 애로를 극복했다.

또한 김치의 경우 김치 양념(시즈닝), 김치 음료 등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인삼은 면역력을 강조한 마케팅에 집중한 사례를 발표했으며, 장류·라면 등 가공식품은, 마케팅 방식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전환해 온라인몰 입점·판매를 대폭 늘리고, 현지 대형 유통매장 등 주류시장을 적극 공략한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온라인 판매채널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업체들이 해외 대형 온라인몰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수출국의 식품시장 동향, 통관기준, 라벨링 규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2021년 수출 지원 업무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농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김현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수출 농가·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대면 수출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에도 농식품 수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 각국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성 연구 및 홍보를 통해 김치·인삼·장류 등 전통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작년에 해외 수요가 증가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은 적극적인 온라인·모바일 연계 홍보를 통해 소비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각

은 유망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호주·남미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우리 농식품의 판로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좋은 실적을 낸 것은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에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출농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올해 사과나무 꽃눈 분화율, 평년보다 낮다'

홍로·후지 각각 평균 67%·54%... 평년비 98%·87.4% 수준

올해 사과 주산지의 꽃눈분화율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올해 1월 2일부터 8일까지 경북과 경남, 전북, 충북의 사과 주산지 관측농가 9곳을 대상으로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홍로' 품종은 평균 67%, '후지' 품종은 평균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과 대비해 '홍로'는 98% '후지'는 87.4% 수준이다.

꽃눈분화율이 평년보다 낮은 것은 지난해 여름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햇볕이 부족하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해 꽃눈분화에 필요한 저장양분 양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꽃눈분화율은 사과나무의 꽃눈이 형성되는 비율로, 사과나무의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꽃눈분화율이 낮은 상황에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 맺는 과일수가

줄어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꽃눈분화율이 높을수록 불구하고 가지치기를 적게 하면 열매를 맺는데 많은 노동력이 든다.

농가에서는 이번 결과를 참고해 농장의 꽃눈분화율을 조사한 뒤 가지치기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꽃눈분화율을 조사하려면 자람새가 중간 정도인 나무를 선택한 뒤, 나무의 동서남북 방향에서 성인 눈높이 정도에 달린 열매가지(결과모지)의 눈을 50~100개 정도 채취한다. 이어 채취한 눈을 날카로운 칼로 세로로 이등분하고 확대경을 이용해 꽃눈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채취한 눈 가운데 꽃눈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열매가지를 많이 남기고, 60~65% 정도면 평년처럼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 65% 이상이면 평년보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제거한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임대주택 연말정산 비대면 업무 확대 지원

전북개발공사는 2021년부터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임대료 납부내역 자료를 입주민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내용을 수기로 발급받아 입주민에게 제공했으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업무 확장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해왔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부터 입주 고객들은 국제청에서 임대료 납부 내용

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로 힘든 입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임대조건을 동결 한 바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전 단지에 비점축식 온도계, 순세정제, 환균필름 등을 지원했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주택 시민을 위한 임대주택 신규 공급과 함께 입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자산운용

전문가 20명 공개 모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웅진)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을 고려해 '2021년도 제1차 자산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투자 및 수탁자책임, 리스크관리, 법무 등 기금운용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채용 절차를 거쳐 총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투자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매년 2~3회 운용직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서류 및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함께 최고의 직업 윤리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문업체를 통한 인성검사 및 평판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 따른 지원서 접수는 14일부터 28일(오후 6시 마감)까지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4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각 분야 직급별 자격요건 등 운용직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nps.or.kr>) 또는 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http://fund.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는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14일 전북도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꽃 한 송이를 나누어 주며 꽃 소비확대를 호소했다.

'꽃과 함께 웃음 찾아요'

전북도-전북농협-NH농협은행 전북본부

도청에서 화훼 소비촉진 운동 전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정재호),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와 함께 14일 전북도청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꽃 한 송이를 나누어 주며 꽃 소비확대를 호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 정재호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최재용 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도민 모두가 꽃과 함께 웃으며 이겨내자"며 "앞으로 전북도청도 화훼농가 돕기

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전북농협 임직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꽃 나눔을 전북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여, 어려운 농가를 돕고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를 선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고병원성 AI 방역현장 점검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권오정)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 현장점검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2021년 현장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권오정 지부장의 부임 시작 사업으로 전북지역에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장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남원시지부는 14일 사면면의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추진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위문물품과 방역복을 전달했다.

권오정 지 부장은 현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며, 농협은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전 조합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무주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사진)이 2,500여명의 모든 조합원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현금이 아닌 무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했다. 양승욱 조합장은 "어려운 때 조합원과 함께하는 것이 농협 본연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실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며 더불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간조사 전문기업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010-5636-7755

907호